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2
주주총회 소집공고	3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5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7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7
III. 경영참고사항	8
1. 사업의 개요	8
가. 업계의 현황	8
나. 회사의 현황	14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3
☐ 재무제표의 승인	23
☐ 정관의 변경	47
☐ 이사의 선임	48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49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56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56

주주총회소집공고

2013 년 03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스엠이씨
대 표 이 사 : 원종범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솔리 666
(전 화) 055-250-4800
(홈페이지)<http://www.esm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이사 (성 명)최영섭
(전 화)02-535-773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17기 정기)

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2조에 의거 제17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년 03월 22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대원동 123 창원컨벤션센터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7기(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역(1주당) : 현금배당 20원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자

성 명	생년월일	주요 약력	추천인	최대주주와의관계	회사와의거래내역
이선우	1955.10.26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현)백두종합법률 변호사	이사회	없음	없음

-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제18기 이사보수지급한도 요청액 : 일금이십오억원정
- 제6호 의안 : 감사보수지급한도 승인의 건
제18기 감사보수지급한도 요청액 : 일금이억원정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⑤ 항에 의거 한국
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인감증명서첨부), 대리인의 신분증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③ 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였고,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3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솔리 666

주식회사 에스엠이씨
대표이사 원종범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등의 성명	
				신순목(출석률 : 100%)	류대현(출석률 : 75%)
				찬 반 여 부	찬반여부
2012-01	2012.03.02	- 제16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 제1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찬성	-
2012-02	2012.04.27	- 대표이사 변경의 건 - 이사회 소집권자 지정 및 의장 선임의 건	가결	찬성	찬성
2012-03	2012.06.21	- 제4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건	가결	찬성	불참
2012-04	2012.11.07	- 신규 시설투자 승인의 건 - 토지 매입의 건	가결	찬성	찬성
2013-01	2013.03.04	- 제1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1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찬성

- * 류대현 사외이사는 2012년 3월 23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신규선임 됨
- * 신순목 사외이사는 2013년 1월 7일부로 일신상의 사유로(미등기임원으로 변경) 사외이사직을 사임함.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2,500,000	44,368	22,184	-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이사전체의 보수 한도임.
- * 상기 사외이사의 인원수는 2012년말 기준 인원수이며, 작성일 현재는 사외이사 1인이 사

임하여 사외이사의 총수는 1인이며, 금번 주주총회에서 1인을 추가 선임할 예정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는 기계사업부문과 통신사업부문의 양 사업부문체제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 기계사업부문

1. 산업의 특성

(1) 산업의 개요

① 공작기계

공작기계(Machine Tool)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Mother Machine)'라고 일컬어집니다. 공작물의 종류별 형상에 따라 여러가지의 공작계와 공구가 사용되고 자동차 부품을 비롯하여 산업기계, 발전기, 가정전기제품, 항공기, 조선 및 우주산업등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부품이 공작기계에 의해 가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품들을 가공하는 기계도 공작기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작기계를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를 만든다는 것은 기계부품을 제작하는 것이며, 다양한 제조방법중에서도 절삭가공과 소성가공에 이용되는 모든 기계를 의미합니다. 공작기계를 만드는 산업은 전통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적인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으로 간주되어왔으며 동 공업의 발전수준은 일국의 공업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특성으로는 공작기계는 자본재산업의 핵심산업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초산업으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공작기계사업은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하여 투자자본에 대한 자본회전율이 낮으며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자본회전이 느린 산업입니다. 또한, 불경기에는 즉각적인 영향을 받고, 호황기에는 늦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사업은 규격, 품질, 성능 등 다양한 기술집약적 특성을 가진 산업으로서 기술축적에 오랜 시간과 노하우가 요구됩니다. 모방 기술의 한계로 인해 단기간에 경쟁력 확보가 어려우며 엔지니어링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집약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공작기계 수요업체는 가격을 구매의 제 1요인으로 두고 경제적 장비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중/대기업은 무인 운전을 목적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FMS/C)의 도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 공작기계 산업 정의 및 분류

공작기계 산업은 금속소재를 가공하여 각종 기계부품이나 기계를 만들어내는 설비를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공작기계는 가공방법에 따라 크게 금속절삭기계와 금속성형기계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 분류, 특성 및 각각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i) 금속절삭기계

금속절삭기계는 금속을 비롯한 각종 경질 물질을 절삭 또는 제거하는 가공을 하는 기계를 뜻

하며 이는 다시 선반, 밀링머신 등의 범용 공작기계와 특정한 모양이나 치수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에 적합한 전용공작기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범용공작기계에 수치 제어기능을 더하여 정밀도를 높이고 자동 가공이 가능하게 한 NC(Numeric Control)절삭기계가 점차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ii)금속성형기계

금속성형기계는 소성 가공(재료에 외력을 가하여 여러 형태로 가공하는 것)에 속하는 기계로 단조, 압연, 프레스, 압출, 판금 가공을 주로하는 기계류를 뜻합니다. 프레스, 압연기, 전단기, 벤딩머신 등이 이에 속합니다.

나)공작기계 산업의 특성

i)과점적 시장구조 : 국내 공작계시장은 다품목 소량의 생산 형태이기 때문에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늦어지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생산액 면에서는 소수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대형 기종 위주의 일부 대기업 참여 부문을 제외하면 다품종 소량생산의 형태로 대규모 자본 축적이 어려워 수많은 중소기업이 생산주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많은 기업이 난립해있는 상황이지만 생산액 규모에서는 대기업 중심의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ii)자본재 산업 : 타 산업 가공 공정에 사용되는 중심 설비이므로 모든 기계의 모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본재 산업입니다.

iii)소량 다품종 생산 산업 : 각 제품이 용처에 따른 공통성이 적어 주로 주문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제조업 전반의 자동화 추세에 따라 고정밀, 고기능의 NC머신이 수요처의 필요에 따라 소량 생산되는 추세입니다.

iv)경기 민감성 산업 : 제조업 설비투자 동향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경기 민감성 산업으로 특히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의 설비투자 동향에 의하여 시황이 좌우됩니다.

②산업용 로봇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 미국의 유니메이션사에서 개발한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포드자동차에서 1961년경 다이캐스팅 머신으로부터 주물부품을 하역하는 작업에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이캐스팅 환경은 주물공정중에 방사되는 열과 연기 때문에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워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대표적인 대상이었습니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의 사용은 로봇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근래의 서비스 로봇의 경우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지만 산업용 로봇의 경우는 정밀도와 스피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용도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액정, 반도체 업계용 및 클린 환경 하에서 반송용 로봇을 위시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 되고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PDP나 LCD에 사용되는 얇은 유리판을 이동하는데 있어서 정밀하게 얼마나 빨리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가가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직다관절, 수평다관절, 다이렉트 드라이브 로봇등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2)산업의 성장성

①공작기계

가)시장의 동향

2012년 3분기 공작기계 시장은 월수주가 2개월만에 전월대비 증가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2개월연속 감소한 가운데 3개월연속 3,000억원 이하의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IMF, KDI 등 국내외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에 따른 저성장 우려와 기계류 등 국내설비투자 부진 그리고 세계경제 불안요인 지속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2012년 9월 공작기계 수주는 2,502억원으로 전월대비 5.4% 증가(전년동월대비 -19.0%)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2개월연속 감소하였고 내수수주는 1,228억원으로 전월대비 4.2% 증가(전년동월대비 -16.9%)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2개월연속 감소하였습니다.

<공작기계 수주>

(금액: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9월	9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9월
수주	2,538	3,089	3,685	3,305	3,497	3,407	2,705	2,373	2,502	27,716
(증감율)	(24.7)	(21.7)	(-29.9)	(-29.4)	(-16.8)	(-10.6)	(-16.9)	(-12.3)	(-19.0)	(-20.2)
내수수주	1,432	1,478	1,800	1,723	1,548	1,706	1,305	1,179	1,228	13,796
수출수주	1,106	1,610	1,885	1,582	1,949	1,701	1,400	1,194	1,274	13,920

*자료: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은 전년동월(동기)대비 증감률.

한편, 2012년 1~9월 공작기계 수주는 2조 7,71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2% 감소하였습니다. 내수수주는 1조 3,79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9.1% 감소했으며, 수출수주는 1조 3,920억원으로 8.9%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 3분기 수주는 7,580억원으로 2010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부터 각 분기별 수주 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주(억원): 2011년 4분기(8,525) → 2012. 1분기(9,926) → 2012. 2분기(10,210) → 2012년 3분기(7,580)

2012년 9월 공작기계 수출은 194백만불로 전월대비 4.2% 증가(전년동월대비 0.8%)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2개월연속 증가 하였습니다. 품목별 수출에서는 NC절삭기계(121.4백만불, 전월대비 -3.8%)는 전월대비 감소했지만, 범용절삭기계(13.4백만불, 3.5%) 및 성형기계(58.8백만불, 26.0%)는 전월대비 증가 하였습니다. NC절삭기계에서는 NC선반(60.9백만불, 전월대비 -2.4%)이 전월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16개월연속 50백만불 이상을 나타냈고, 머시닝센터(40.8백만불, -2.2%)는 5개월연속 전월대비 감소하며 3개월연속 50백만불 하회하였습니다.

<공작기계 수출추이>

(금액: 백만불)

10년	11년	12년							
9월	9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8월
140	192	248	218	215	266	205	186	194	1902
(47.3)	(36.7)	(40.4)	(18.8)	(33.1)	(49.1)	(-10.6)	(7.2)	0.8	(18.7)

나)시장의 전망

2013년 국내 공작기계 산업은 국내 외 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에 공작기계 생산은 전년대비 5.1% 증가에 그칠 전망입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 중국, 미국 등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세 유지,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신흥시장에 대한 마케팅 강화 등은 긍정적인 요인이나, 국내 외 경제의 저성장세, 국내 자동차 신차 개발 수요 약화 등으로 성장률은 한 자리수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공작기계 생산은 세계 및 국내 경제의 저성장이 제한 요소이나, 국내 설비투자의 증가와 중국, 미국 등 주요시장과 신흥 시장의 수출 증가로 전년대비 5.1% 증가한 6조 7,500억원 전망됩니다. 국내 설비투자의 5%대 증가 전망과 중국, 미국 등 신정부 등장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및 인도, 터키, 브라질 등 신흥시장 성장에 의한 공작기계 수출 증가가 생산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3%대의 국내경제 저성장 흐름과 2013년에도 국내 자동차 신차 개발 수요는 약화될 것으로 보여 성장률은 한 자리수 이내로 전망됩니다.

②산업용 로봇

지능형 산업로봇은 소득 2만불 시대를 선도할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미래를 이끌어갈 스타산업입니다. 또한 지능형로봇은 타분야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복합산업으로 자동차 산업 규모 이상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유망산업입니다. 향후 국내 로봇산업의 시장규모가 2020년에는 100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1월 6일 재정사업을 근간으로 한 녹색뉴딜사업을 발표하였고,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제3회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비전으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17개 사업중 응용로봇분야가 지정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으로는 지능형 로봇은 첨단 신기술 분야의 복합체로 신산어의 창출을 촉진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며 사회적 측면으로는 노동력을 대체 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업부문

(1)산업의 특성

①통신사업 시장의 현황

2011년도의 통신 시장의 화두는 LTE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대결로 볼 수 있는 모바일 기기에서의 대 변화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의 모바일 기기들의 보급확산을 가져왔고 이는 각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트래픽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3G 서비스로는 한계가 있었고, 대안으로 제시된 WiFi 망의 확장 등으로도 늘어나는 데이터양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무선 데이터양의

증가로 인해 각 통신사업자들은 기존 주파수 자원을 가지고 많은 트래픽을 공급할 수 있는 LTE 서비스는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습니다.

해외주요사업자별 LTE서비스 전개현황

국가	사업자	상용화 시기	주파수
미국	Verizon Wireless AT&T Metro PCS	2010년 12월 2011년 3Q 2010년 9월	700M 대역 700M 또는 1.8G 1.7/2.1GHz
독일	Vodafone	2010년 12월	800M, 2.6G
일본	NTT Docomo	2010년 12월	2.1G, 1.5G
러시아	Yota	2010년 8월	2.5~2.7G
이탈리아	Telecom Italia	2011년 4Q	2.6G
기타	TeliaSonera(Sweden)	2009년 12월	2.6G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자 3사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듯 2011년부터 본격적인 LTE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2011년 7월에 LG U+ 와 SKT가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KT도 아직 가입자를 수용하고 있는 2G 서비스 종료라는 무리수를 감행하면서까지 LTE의 대열에 합류하였습니다.

국내사업자별 LTE 서비스 현황

구분	주파수대역	상용화시기	전국망 구축	가입자 수
SKT	800MHz 2GHz	2011년 7월	2012년 4월	567만명
LG U+	800MHz	2011년 7월	2012년 3월	356만명
KT	1.8GHz	2012년 1월	2012년 4월	249만명

출처: 연합뉴스, 2012년10월 25일 자료

이러한 LTE 서비스의 도입으로 네트워크의 3G 네트워크에서 더디게 진행되던 서비스 네트워크의 All IP화가 가속되어 IP 프로토콜 기반의 음성/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 등의 멀티미디어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IMS(IP Multimedia Subsystem) 망으로의 진화가 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LTE Backhaul의 IP화는 기존 packet 망의 고질적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보안성이 취약한 WiFi 네트워크의 보급은 모바일 서비스 네트워크 상의 Security 문제를 심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신 사업자들은 Security를 강화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LTE 및 이동통신장비 분류 당사 제품 분야

LTE와 관련된 당사 제품 분야는 Security Gateway 장비군으로 LTE 서비스의 e-NodeB와 Core망의 Security를 제공해줄 수 있는 IPSec Gateway와 WiFi 망에서의 이동성과 Security를 제공할 수 있는 ePDG가 본 제품군에 포함됩니다.

나)All IP 화와 관련된 당사 제품 분야

IMS 및 All IP화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통신장비는 서비스 및 제어 장비, 전달망 장비, 가입자망 장비 및 기업용 구내망 장비로 나뉘집니다.

당사는 서비스 및 제어장비 분야와 All IP화 네트워크로 진화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달망 장비 분야의 게이트웨이 장비를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하여 외산장비와 경쟁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게이트웨이 분야에서는 국내 Market Share를 50% 이상 점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외산 벤더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다)통신시장의 전망

BcN 장비시장은 2009년 972억달러에서 연평균 5.6%의 성장율을 보이면서 2013년에는 1209억달러규모에 이를 전망이며, 국내 BcN 장비 생산액은 2009년 1조 1,891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9.5%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13년에는 1조 7,104억원 규모에 이를 전망입니다.

BcN 장비 시장 전망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세계시장	97,242	100,525	106,248	112,371	120,964	5.6%
국내시장	1,189,130	1,296,668	1,422,261	1,557,966	1,710,491	9.5%

(자료: 한구전자통신연구원, 2010년 1월 자료, BcN장비산업의 시장전망 및 금융위기 대응 실태분석)

미디어 게이트웨이는 개방형 구조 차세대 통신망의 핵심장치로 교환장비를 대체해 나가면서 생산규모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시그널링게이트웨이는 All IP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PSTN 교환기를 대체하기 위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는 약 195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스위치와 인터넷 전화 단말간 보안 및 세션기능과 NAT 기능 등을 제공하는 장비인 SBC는 IMS의 도입 및 All IP화가 진행함에 따라 점차 그 시장규모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는 2009년 4.4억 달러에서 2013년 5.7억 달러로 연평균 6.3%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시장에서도 2009년 156억원에서 2013년에는 300억원 규모로 연평균

17.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달망 계측 교환장비 국내생산액 현황 및 전망(단위: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AGR
Media Gateway	59,564	63,585	67,883	72,193	76,554	6.5%
Signaling Gateway	15,789	16,634	17,590	18,531	19,528	5.5%
ATM 교환기	42,000	41,160	40,769	40,618	40,362	-1.0%
합계	117,353	121,379	126,242	131,342	136,444	0.7%

LTE 및 WiFi 등 모바일 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모바일 데이터 장비 시장의 규모는 2010년 약 378억달러에서 연평균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42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LTE 및 WiFi모바일 통신서비스의 데이터 장비시장은 LTE 서비스의 도입시기인 2011년 말부터 점차 시장규모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약 4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WiFi 망의 Security 및 이동성을 제공하기 위한 ePDG 시장은 WiFi의 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각 통신사업자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 기계사업부문

당사의 기계사업부문은 삼성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를 모태로 1999년 6월 18일에 설립된 스맥으로 부터 시작되었으며, 공작기계(중소형 CNC선반, 머시닝센터 등) 및 관련 부품, LCD 생산관련 Robot의 제조·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품질의 Machining center(이하 "MCT"라 함)와 CNC 선반, LCD 관련 로봇 등을 개발·제조하여 전국 4개 영업소(창원, 경인, 대전, 대구)와 대리점을 통해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자동차, 전기, 전자 등 내수경기 호황과 자동차 업체의 설비투자 등 관련 산업의 활황으로 인한 공작기계의 수요 증가로 인해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였으며, 해외에서도 유럽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 미국 기계산업 및 아시아 지역의 공작기계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꾸준한 수출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액은 2008년 385억, 2009년 325억, 2010년 746억원, 2011년 1,092억원, 2012년 1,201억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3년도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공작기계

가)영업의 개황

당사는 1989년 삼성중공업 공작기계사업부로 시작하여 공작기계를 개발, 생산, 판매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수치제어식 머시닝센터, 선반, 보링머신, 전용기등을 공급하는데 이는 모두 자체개발하여 매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공작기계의 국내시장 여건은 마이너 업체를 불문하고 중,소형의 규격화된 모델을 개발 양산해온 대부분의 국내 공작기계 업계에서 세계 최고의 몇 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공작기계 분야는 근접할 수 없는 분야였으며, 선진국에 비해 기술적으로 낙후되어 있었고 대부분 산업의 중요 부품가공은 독일, 일본 등 고가의 수입공작기계가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국내 공작기계산업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중소형 공작기계의 개발에 집중하여 대부분의 기종에 대해 라인업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군과 뛰어난 기술력뿐만 아니라 철저한 A/S와 고객들의 요구는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제품에 반영시키려 노력하는 소비자중심의 기술개발과 영업 전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당사는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가공용 공작기계 개발을 위해 선진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최단기 납기, 품질, 가격 경쟁력 면에서 수입기계보다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시장점유율

공작기계업체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
회사명	2011년도	2010년도
	점유율	점유율
현대위아(주)	44.9	43.9
두산인프라코어	40.1	41.8
화천기계공업(주)	8.3	8.2
(주)에스엠이씨	6.7	6.1

주) 공작기계협회자료를 근거로 당사의 생산품목을 기준으로 산출

- 수주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공작기계 Line UP 전개방향

- 1단계 : 2007 ~2008 년(기술제휴선, OEM ,외주개발)

General 일부 LINE UP ► LINE UP 확대

- 2단계 : 2009 ~2010 년(OEM ,외주개발)

General 제품군 ► Premium 제품군 확대

- 3단계 : 2011 년이후 ~(자체연구소,해외설계)

Premium 제품군 ► HIGH END 제품군 개발 (Full-line up구축)

► 대형제품 및 복합모델 생산

▶ 핵심모듈 자체생산

라)경기변동의 특성 및 대체시장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공작기계 제조업은 주로 자동차, 중장비, 조선산업과 높은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작기계 매출은 주요 전방산업의 영업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전방산업의 경기변동 및 설비투자계획 등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공작기계 산업은 주 수요처인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등이 총 수주액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큼니다. 동 업계의 수요가 전방 수요산업의 설비투자 변동에 의해 좌우되므로 경기변동에 따른 기복이 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하강 시에는 선행성을 보이며, 경기상승 시에는 후행성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호경기 불경기 예측의 지표가 될 수 있을 만큼 경기변동에 민감하나, 한편으로는, 전방산업의 설비투자 계획이 가장 큰 영향요소라 볼 수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이와 같은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영업력 확대를 통한 매출처를 다양화하고, 내수 뿐만 아니라, 해외 영업망을 구축하여 수출을 늘려 국내의 매출처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년간 축적된 공작기계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유럽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왔던 특수한 공작기계를 개발하여 대체공급하는 등 동사의 제조여건에 맞는 대체 산업을 확대하여 외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산업용 로봇

가)영업의 개황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 미국의 유니메이션사에서 개발한 유니메이트라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포드자동차에서 1961년경 다이캐스팅 머신으로부터 주물부품을 하역하는 작업에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이캐스팅 환경은 주물공정중에 방사되는 열과 연기 때문에 사람이 근접하기 어려워 로봇에 의한 자동화의 대표적이 대상이었습니다. 최초의 산업용 로봇의 사용은 로봇의 특징을 잘 말해줍니다. 근래의 서비스 로봇의 경우 사람과의 소통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있지만 산업용 로봇의 경우는 정밀도와 스피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용도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를 중심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액정, 반도체업계 용 및 클린 환경 하에서 반송용 로봇을 위시하여 다양한 업계에서 활동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PDP나 LCD에 사용되는 얇은 유리판을 이동하는데 있어서 정밀하게 얼마나 빨리 반복적으로 정확하게 이동하는가가 생산성을 좌우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직다관절, 수평다관절, 다이렉트 드라이브 로봇등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3년 3월 Clean Robot 부품개발 납품을 시작으로 삼성전자로 LCD라인에 공급되는 LCD이송용 로봇(LTR- LCD Transfer Robot)으로 2005년 5월 LCD Link 8세대를 제작개발을 시작으로 6,7,8세대 라인에 매년 매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0여대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삼성전자의 8세대, 11세대등에 많은 매출이 예상되는 등 당사의 신동력 사업으로 지속 발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통신사업부문

당사 통신사업부는 대한민국 벤처 1세대 기업인 뉴그리드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이중망간의 연동장치를 개발하여 서로 다른 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게이트웨이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1)경기변동의 특성과 대체시장

당사의 주요고객은 유무선 통신사업자이며 당사의 매출은 통신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최근의 추세를 볼 때 통신망에 대한 투자의 감소는 가입자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업자의 경쟁력 약화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LTE의 등장으로 인해 각 사업자는 공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LTE 서비스가 정착되는 향후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매출 발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예산의 집행시기에 따라서 매출 발생시점이 좌우되기 때문에 매출 발생시점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현 주력제품인 BcN 교환장비 시장은 시기적으로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All IP화와 더불어서 향후 수년간은 지속적인 매출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BcN의 고도화 사업인 UBCN으로 인해 기존 장비의 대개체 시장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차세대 주력제품인 Security 게이트웨이 시장은 LTE 상용서비스 개시 및 각 통신사업자의 공격적인 투자 본격화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미 다양한 Application의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i)트링크/미디어 게이트웨이

트링크/미디어게이트웨이는패킷기반의 멀티서비스를 수용하는 단일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의 차세대 통신망의 핵심 장치입니다.

전화망으로부터 입력되는 음성 및 데이터 정보를 IP 또는 ATM 등의 패킷으로 변환하여 고속의 패킷코어망을 통해 목적지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PSTN 음성서비스, N-ISDN, FR 및 무선 등 다양한 형태의 입력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는 정합기능과 다양한 입력 트래픽들을패킷으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 기능 및 관련 프로토콜 처리 기능입니다.

국내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 U+ , KCT 등이 주요 고객 대상이며, VoIP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터넷전화(070) 사업자들도 고객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당사의 트링크게이트웨이는 국제표준을 준수하여 해외에서도 IMS로 진화를 준비하는 통신사업자를 고객대상에 포함하여 영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ii)시그널링게이트웨이

시그널링게이트웨이는 특정 미디어(IP)와 다른 미디어(PSTN) 간의 신호 메시지 변환을 담당하는 장비로 BcN 및 IMS, All IP 등 차세대 망 진화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핵심망 장비입니다. 핵심망이란 교환국에서 기본적으로 음성통화 및 데이터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들을 말하며, 국내/외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장비구축시장이 목표시장이 됩니다.

국내 목표시장은 KT,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 LG U+ 등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이며 VoIP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인터넷 전화사업자들도 목표시장에 포함됩니다. 이미 KT, SK Telecom, LG U+ 등에 장비를 공급하였으며, 070 사업자인 삼성 SDS에도 본 장비를 공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당사의 파트너사인 삼성을 통하여 네덜란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장비를 공급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No7 신호 중계기를 시그널링게이트웨이로대개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사업이 연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Session Border Controller

All IP 망에서의 보안강화 및 가입자 세션에 대한 중간 중단 기능과 이기종단말/망간의 프로토콜 호환성 정합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장비인 SBC는 초고속 인터넷 기술의 발전, 유선 VoIP 시장의 경쟁적 확대로 인해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입니다.

국내 VoIP 시장은 2007년 데이콤의 myLG070 서비스를 필두로 SK 브로드밴드 및 KT가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VoIP 서비스의 차별화, 보안이슈, QoS 보장을 위해서 SBC 장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SBC 시장은 전통적으로 외산 장비가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고성능/고보안성을 지원하면서도 컴팩트한 장비를 개발하여 2009년부터 통신사업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All IP의 진행과 더불어서 SBC 시장은 점차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v)WTCP

인터넷 망에서 사용되는 TCP 프로토콜은 유선환경을 전제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동통신 등 무선인터넷 환경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무선 인터넷 환경에 최적화된 Wireless TCP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적용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WTCP 장비입니다.

이동통신사의 무선 트래픽은 무선인터넷이 본격화 되는 2007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되는 트래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WTCP 장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2007년에 KT에 WTCP 장비를 공급하여 KT의 3G 망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2010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LG U+ 및 SK 텔레콤의 데이터망을 목표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V)IMS 비디오 게이트웨이

IMS 비디오게이트웨이는 IMS 표준 규격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존의 음성전용 미디어 게이트웨이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영상처리 기능(3G-324M 표준규격)까지 추가

구현되어 그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IMS-비디오게이트웨이가 IMS 망에 구축된 이후 IMS망과 WCDMA 망(3세대 또는 3.5세대 이동통신) 간의 영상통화 혹은 영상부가 서비스가 수행되어야 할 경우 당사의 장비는 비디오 게이트웨이의 기능까지 함께 제공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시장은 기 공급완료한 KT 외에 SKT 및 LG U+ 등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이며 2008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시작하여 꾸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vi)Security Gateway 시리즈

당사의 차세대 주력제품인 Security Gateway 제품군은 4G이동통신의 도입과 함께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가입자와 4G 코어망 사이에 위치하여 고용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Security를 보장하며 처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간의 LTE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되는 2013년부터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IPSec Gateway는 LTE망에서 eNode-B와 Core 망 사이를 연결해주는 Packet 망이 갖고 있는 보안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로 LTE에 대한 시설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2013년도부터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당사에서는 현재 삼성과의 파트너십을 이용하여 해외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ePDG(evolved Packet Data Gateway)는 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망을 보완하기 위해 구축한 WiFi 망에 접속한 가입자를 LTE 망과 연동시켜 이동성 및 보안을 제공하기 위한 장비로 LTE 서비스가 시작된 2011년부터 본격적인 도입이 예상되고 있는 장비입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 늘어나고 있는 Data 트래픽을 분산시키기 위한 솔루션으로써의 WiFi의 역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들은 기존 WiFi 망을 고도화 시키고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며 ePDG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LTE Femtocell Gateway는 LTE 망에서 Macro Cell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가정내 또는 사무실 내의 음영지역 보완에 효과적인 솔루션입니다. 당사는 Femtocell AP 제조사와 협력하여 Femtocell GW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LTE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2012년 중반부터 시장에서는 LTE 망을 보완하기 위한 Femtocell AP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VoLTE 등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Core망의 부하 및 Macrocell의 투자를 줄일 수 있는 Femtocell은 늘어나는 트래픽을 분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KT, SKT, LGU+ 가 경쟁적으로 Femtocell에 대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사는 3개사 모두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대체시장 현황

해외 주요 통신장비 업체들이 당사와 유사한 성격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는 대체제

품의 성격보다는 경쟁 관계의 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사가 지금까지 주력제품으로 공급해왔던 교환장비 관련 기술은 국제규격을 기반으로 통신사업자 요구사항에 맞게 최적화하여 공급해왔습니다. 따라서 관련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노우하우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통신벤더들도 국제규격을 만족하는 유사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고객의 요구사항 반영에 대한 노우하우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 제품을 대체하여 본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내시장에 있어서 경쟁제품의 진입장벽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며 이는 해외시장에 있어서 당사가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2)경쟁상황

-경쟁구조에 관한 상황

유무선 통신 장비 시장은 통신사업자가 주 고객인 시장입니다. 특정한 기업들에 의해 독점 또는 과점되어 있지 않은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산업의 수주 및 장비공급 프로세스는 통신사업자가 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제안요구서를 공고하게 이에 대한 관련 장비를 제안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업체들이 기술평가와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장비를 공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경쟁요소로는 첫째, 통신서비스는 산업의 특성상 365일 24시간 안정된 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고, 둘째, 원가구조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가져야 하며, 셋째, 타사보다 미리 투자를 진행하여 기술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교환장비 제품은 이미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장비를 공급하여 기간통신네트워크에서 안정적인 운용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안정적인 기술지원으로 해외 장비업체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관계로 경쟁업체의 진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사의 차기 주력제품인 Security Gateway 제품의 시장은 이머징 마켓이며 아직 이 분야에서는 뚜렷한 선두주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쟁사로는 Cisco, Juniper 등의 거대 통신장비업체가 있으며 중소기업체로는 Genband, Stoke, Radisys 등의 업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Cisco, Juniper 등은 본 시장에 특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중소기업체들에 대해서는 당사가 본 분야에 대한 기술통찰력을 가지고 선투자를 진행한 관계로 기술력 및 원가 경쟁력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쟁우위에 관한 사항

당사는 BcN, 이동통신망 구축 및 All-IP 진화를 위한 IMS, FMC 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망

통신장비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환장비 제품에 대해서는 KT, SK브로드밴드, SKT 및 LGU+ 등 국내 대표적인 유무선 통신사업자로부터 성능, 이중화, 용량, 확장성, 안정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경쟁사대비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해외 유수의 통신장비 업체를 제치고 공급권을 확보하였으며 일본의 메이저 통신장비업체와 파트너쉽을 통하여 일본 통신사업자 시장에도 진입하였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통신사업자에도 삼성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장비를 공급하였습니다. 이는 해외 통신장비 업체들이 가지지 못하는 커스터마이징 능력을 당사가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능했던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urity Gateway 장비에 대해서는 경쟁사 대비 높은 패킷처리 용량과 확장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해외통신장비 업체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LTE 서비스의 본격화와 더불어 Femtocell 등의 트래픽 분산 솔루션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당사에서는 국내 Femtocell 업체 수개사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 대비 해당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년간의 통신시장에서의 경험과 기술통찰력, 개발력 및 유지보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무선 통신사업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모리콘 사업

모리콘은 당사의 기계사업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모리콘이란 모바일리모트콘트롤(Mobile Remote Control)의 약자로 당사 기계사업부문에서 제작하는 공작기계를 당사 통신사업부문의 통신 관련 기술을 이용하여 원격 감시 및 조작이 가능하게 하는 솔루션입니다.

모리콘은 2012년 4월에 열린 SIMTOS 2012(Seoul International Manufacturing Technology Show)를 통해 전시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에게 소개가 되었으며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구매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2년 9월에 미국 Chicago에서 열린 IMTS2012에서도 모리콘을 전시하여 많은 업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 경쟁사가 원격 상태조회 기능만을 소개한 데 비해 당사는 원격 영상 감시 및 조작까지 가능한 제품을 소개하여 경쟁사와 차별성을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본 모리콘 솔루션을 통해 당사 공작기계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또한 이를 통해 통신사업부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새로운 제품 분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로봇 분야

서비스 로봇 분야도 당사 기계사업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비스 로봇은 당사 기계사업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용로봇 기술과 당사 통신사업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신, 제어 기술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또는 특수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당사에서는 최근에 세계최초로 교정용 로봇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등, 서비스로봇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에너지 효율성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목적으로 전력산업과 IT 그리고 통신기술을 결합하여 안정적이고 고효율의 지능화된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공급자와 소비자가 정보를 교환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게 전력사용시간과 양을 통제 하는 것을 스마트그리드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실시간 요금제 도입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 보급추진방안”을 수립하여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1조4750억원을 투자하여 기계식 전력량계를 전자식 전력량계(스마트미터)로 전량 교체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0개 컨소시엄(168사)가 5대분야(Smart Place, Smart Transportation, Smart Renewable, Smart Power Grid, Smart Elec. Service)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제주실증단지를 2009년말부터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KT 컨소시엄과 한전 컨소시엄과 함께 제주 실증단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해당 컨소시엄과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공시대상 사업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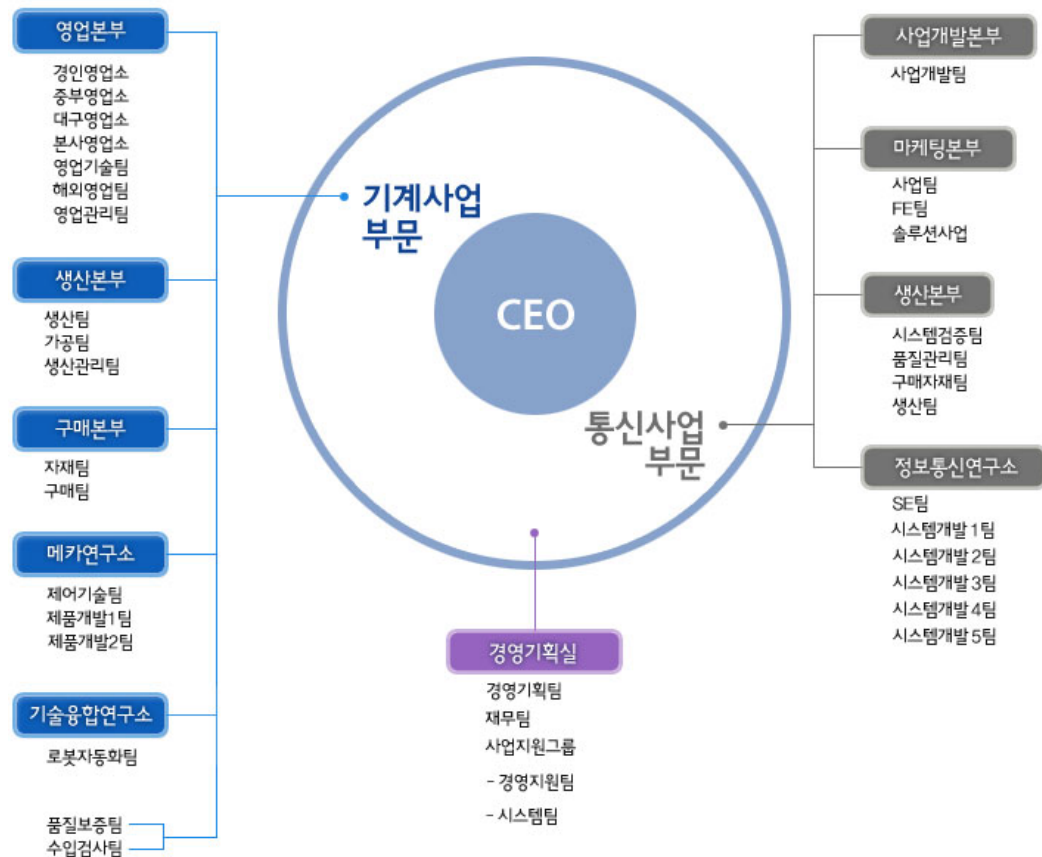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문	표준산업분류코드	사업내용
------	----------	------

기계사업부문	C29221	공작기계 및 산업용로봇 제조
통신사업부문	C26410	게이트웨이 등 통신장비 제조

3. 조직도

기계·통신 사업의 선두주자!
(주) SMEC입니다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2012년 말 기준 매출액은 1,342억원으로 전년도(1,243억)대비 8.0%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68억원과 15억원을 기록해 2011년 대비 36% 증가 및 58% 감소하

였습니다. 수주증가로 인한 실적 개선과 원가절감활동으로 영업이익은 상승 했으나 토지 매입 및 시설 투자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및 원달러 환차손등으로 법인세차감전이익이 감소하였고, 이연법인세 효과로 인한 법인세비용의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상황에 대한 사항은 III.경영참고사항 1.사업의 개요 나.회사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현금흐름표

※ 다음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7 기 2012. 12. 31 현재

제 16 기 2011.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17기	제 16 기
자 산		
Ⅰ. 유 동 자 산	80,759,248,568	70,952,484,128
Ⅱ. 비 유 동 자 산	51,782,799,863	45,827,881,397
자 산 총 계	132,542,048,431	116,780,365,525
부 채		
Ⅰ. 유 동 부 채	59,739,199,770	60,231,648,900
Ⅱ. 비 유 동 부 채	24,952,082,453	12,568,920,135
부 채 총 계	84,691,282,223	72,800,569,035
자 본		
Ⅰ. 자 본 금	7,407,980,000	7,330,605,000
Ⅱ. 주 식 발 행 초 과 금	40,911,076,896	40,326,914,413
Ⅲ. 기 타 자 본 항 목	(17,834,216,131)	(17,834,216,131)
Ⅳ. 이 익 잉 여 금	15,385,542,967	14,156,493,208
자 본 총 계	47,850,766,208	43,979,796,490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32,542,048,431	116,780,365,525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7 기 (2012.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6 기 (2011.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I. 매 출 액	134,265,613,174	124,316,956,018
II. 매 출 원 가	109,736,987,701	105,773,910,424
III. 매 출 총 이 익	24,528,625,373	18,543,045,594
판매비와관리비	17,719,509,009	13,536,552,374
IV. 영 업 이 익	6,809,116,364	5,006,493,220
기타이익(손실)	735,656,588	855,873,707
기타수익(비용)	(2,485,178,594)	(639,732,764)
금융수익	187,106,618	196,222,498
금융원가	2,714,169,440	2,083,418,436
V.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532,531,536	3,335,438,225
법인세비용	1,020,635,029	(316,154,128)
VI. 당기순이익	1,511,896,507	3,651,592,353
기타포괄손익	(18,623,568)	(89,361,659)
VII. 총포괄손익	1,493,272,939	3,562,230,69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17 기 (2012.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6 기 (2011.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5,270,273,566	14,059,312,793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3,777,000,627	10,497,082,099
2. 보험수리적손익	(18,623,568)	(89,361,659)
3. 당기순이익	1,511,896,507	3,651,592,353
II.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8,333,334	8,333,334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8,333,334	8,333,334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294,050,000	290,645,500
1. 이익준비금	26,731,820	26,422,320
2. 현금배당 (전기: 20원, 당기: 20원)	267,318,180	264,223,180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4,984,556,900	13,777,000,627
------------------	----------------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17 기 (2012.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6 기 (2011.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목			자본금	주식발행초과 금	기타자본	미처분이익잉여 금 (미처리결손금)	자본 합계
2011.01.01 (전기초)			5,613,670,000	6,696,938,810	-	10,594,262,514	22,904,871,324
합병			1,716,935,000	33,629,975,603	(17,833,950,931)	-	17,512,959,672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	3,651,592,353	3,651,592,353
		기타포괄손익	-	-	-	(89,361,659)	(89,361,659)
		총포괄손익	-	-	-	3,562,230,694	3,562,230,694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265,200)	-	(265,200)
	지분의 발행		-	-	-	-	-
	자본 증가(감소) 합계		-	-	(265,200)	3,562,230,694	3,561,965,494
	2011.12.31 (전기말)			7,330,605,000	40,326,914,413	(17,834,216,131)	14,156,493,208
2012.01.01 (당기초)			7,330,605,000	40,326,914,413	(17,834,216,131)	14,156,493,208	43,979,796,490
합병			-	-	-	-	-
자본의 변동	포괄손익	당기순이익(손실)	-	-	-	1,511,896,507	1,511,896,507
		기타포괄손익	-	-	-	(18,623,568)	(18,623,568)
		총포괄손익	-	-	-	1,493,272,939	1,493,272,939
	현금배당금 지급		-	-	-	(264,223,180)	(264,223,180)
	신주인수권 발행		-	1,980,382,476	-	-	1,980,382,476
	자기주식 거래에 따른 증가(감소)		-	-	-	-	-
	지분의 발행		77,375,000	584,162,483	-	-	661,537,483
	자본 증가(감소) 합계		77,375,000	2,564,544,959	-	1,229,049,759	3,870,969,718
	2012.12.31 (당기말)			7,407,980,000	42,891,459,372	(17,834,216,131)	15,385,542,967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17 기 (2012.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16 기 (2011.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17 기	제 16 기
영업활동현금흐름		
당기순이익(손실)	1,511,896,507	3,651,592,353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7,043,982,509	4,117,845,423
운전자본의 변동	(18,888,272,100)	(7,551,865,198)
법인세의 납부(환급)	(40,493,910)	(6,481,710)
영업활동순현금흐름	(10,291,899,174)	224,054,288
투자활동현금흐름		
이자의 수취	89,519,307	181,308,405
장기금융상품의 감소	420,000,000	1,240,000,000
대여금의 회수	231,977,164	230,690,145
유형자산의 처분		5,579,605,454
보증금의 회수	125,209,092	206,000,000
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20,000,000	10,426,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7,871,069,646)	(8,052,450,059)
무형자산의 취득	(1,573,644,681)	(2,897,500,103)
대여금의 증가	(60,000,000)	(205,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증가	(730,000,000)	(2,590,000,000)
장기금융상품의 증가	(298,762,463)	(598,597,160)
보증금의 증가	(170,000,000)	(423,796,000)
투자활동순현금흐름	(9,716,771,227)	3,096,260,682
재무활동현금흐름		
이자의 지급	(2,394,564,922)	(1,348,443,751)
보통주의 발행	499,116,250	
장기차입금의 증가	13,900,000,000	5,494,726,4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649,122,619	
단기차입금의 증가	33,385,556,034	17,337,721,233
단기차입금의 감소	(22,161,447,489)	(18,071,005,559)
장기차입금의 감소	(36,450,000)	(55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감소	(8,471,372,800)	(1,975,240,000)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		(2,650,000,000)
사채의 상환	(2,500,000,000)	
배당금지급	(264,223,180)	
자기주식의 취득		(265,20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23,605,736,512	(1,762,506,877)
합병으로인한 현금의 증감		2,450,289,642
환율변동효과 반영전 순증가(감소)	3,597,066,111	4,008,097,735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72,024,775)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3,525,041,336	4,008,097,735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5,550,968,765	1,542,871,030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9,076,010,101	5,550,968,76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에스엠이씨(이하 "회사"라 함)는 1996년 3월 5일에 설립되어 첨단 정보통신관련 연구기술용역 및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2009년 5월 26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습니다.

회사는 사업다각화를 통한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2010년 10월 13일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스맥과의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10년 12월 29일 임시주주총회 결과,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2011년 2월 1일을합병기일로 하여 합병하였으며, 2011년 2월 7일 합병등기를 하였습니다.

합병은 회사의 보통주식을 발행하여 주식회사 스맥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합병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스맥의 주주가 합병 후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됨에 따라 법률상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 스맥이 법률상 합병회사인 뉴그리드를 매수한 것으로 회계처리 되었습니다.

당기말 현재 회사의 본점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가솔리 666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62-7 HCN빌딩 5층,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104-9,대구시 달서구 호산동 711 대구융합R&D센터 12층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의 설립시 자본금은 120,000천원이었으나 수차의 증자 및 합병을 통하여 당기말현재 납입자본금은 7,407,980천원이고, 대표이사는 원종범입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의 적용

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국제회계기준)를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아래 기술되는 회계정책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②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
- ③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매도가능금융상품
- ④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순공정가치와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회사의 기능통화인 원(원) 표시통화인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4)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계상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중요한 조정이 발행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는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 주석36 : 금융상품 | • 주석21 : 총당부채 |
| • 주석36 : 대손충당금 | • 주석26 : 수익 |
| • 주석 7 : 무형자산 | • 주석21 : 퇴직급여채무 |
| • 주석31 : 법인세비용 | |

3. 유의적인 회계정책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영업부문

회사는 부문에 배분될 자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부문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최고 영업의사결정자가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부보고 자료에 기초하여 부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석 4에서 기술한 대로 2개의 보고부문이 있으며, 각 부문은 기업실체의 전략적 영업 단위들입니다. 전략적 영업단위들은 서로 다른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하며 각 영업 단위 별로 요구되는 기술과 마케팅전략이 다르므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에게 보고되는 부문정보는 부문에 직접 귀속되는 항목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합니다. 배분되지 않은 항목은 주로 본사 건물과 같은 공통자산, 본사 관련 비용 및 법인세 자산과 부채입니다. 부문의 자본적 지출은 보고기간 중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영업권 제외)의 취득으로 발생한 총원가입니다.

(2) 사업결합

① 사업결합

사업결합은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실체나 사업에 대한 결합을 제외하고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회사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 인수 부채는 다음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 리스계약 : 약정일의 계약상 조건 및 기타 요소를 기초로 하여 분류
- 우발부채 : 현재의무로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 있는 우발부채를 인식
-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종업원급여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 및 측정
- 보상자산 : 보상대상항목과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인식 및 측정

사업결합에서 이전대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그 공정가치는 회사가 이전하는 자산, 회사가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채 및 회사가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로 산정합니다.

회사가 사업결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발생시킨 취득관련원가에는 중개수수료,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내부의 취득 부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을 등록하고 발행하는 원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취득관련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인식하는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제외하고,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영업권

회사는 취득일 현재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하는 기업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득한 식별가능

한 순자산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및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의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측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이후에도 계속해서 남는 초과분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3) 현금 및 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고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단기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매입원가, 생산 또는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모든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사업부문별 재고자산 단위원가는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계사업부	통신사업부
제 품	총 평 균 법	총 평 균 법
재 공 품	총 평 균 법	총 평 균 법
상 품	선입선출법	N/A
원 재 료	선입선출법	총 평 균 법
미 착 품	개 별 법	개 별 법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금융자산은 인식 및 측정을 위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네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③ 대여금 및 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고, 활성시장에서 거래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④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또는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후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분상품 등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⑤ 금융자산의 제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할 때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아니한 경우,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다면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금융자산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면 그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계속하여 인식하고, 관련 부채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였으나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수취한 매각금액은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⑥ 금융자산과 부채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회사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6) 파생금융상품

파생상품은 최초 인식시 계약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후속적으로 매 보고기간 말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각각 아래와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위험회피회계

회사는 이자율위험과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도,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등의 파생금융상품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자산 또는 부채,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의 변동(공정가치위험회피),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확정거래의 환율변동위험(현금흐름위험회피)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 위험관리목적과 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과 그 후속기간에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이 상쇄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의 공정가치변동과 회피대상 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변동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포괄손익계산서의 같은 항목에 인식됩니다.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또는 행사되거나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조정액은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된 날부터 상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충족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분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으로 처리하며,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는 회사가 더 이상 위험회피관계를 지정하지 않거나 위험회피수단이 소멸, 매각, 청산, 행사되거나,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을 경우 중단됩니다.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중단시점에서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향후 예상거래가 발생하는 보고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파생상품의 누적평가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내재파생상품

내재파생상품은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별도의 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이 당기손익 인식항목이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주계약과 분리한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기타 파생상품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어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을 제외한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7) 금융자산의 손상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에 발생한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이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예상되는 손상차손은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금융자산 발행자가 파산하거나 원금이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차입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소멸하는 경우 등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자가 중대한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경우, 동 주식의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중요하게 하락하거나 또는 장기간 하락하는 경우에는 자산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과 같은 특정 분류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손상되지 않았다고 평가된 자산과 관련하여 후속적으로 집합적인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을 측정하여 인식합니다.

①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손상차손을 측정하거나 실무편의상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충당금계정을 사용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후속기간에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거나 충당금을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유사한 금융자산의 현행 시장수익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로 측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

공정가치 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후속기간에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는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 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고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재평가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관련된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사업부문]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 물	30 - 40년	정액법
구 축 물	10 - 2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12년	정액법
차량운반구	5년	정액법
공기구비품	8년	정액법

[통신사업부문]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 물	40년	정액법
구 축 물	20년	정액법
기 계 장 치	4년	정액법
시 설 장 치	10년	정액법
공기구비품	4년	정액법

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 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상각대상 무형자산의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개발비	5년
기타의무형자산	5년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 지를 매 보고기간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① 연구 및 개발

연구 또는 내부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 대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단계의 지출은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와 능력 및 필요한 자원의 입수가능성,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모두 제시할 수 있고, 관련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타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후속지출

후속지출은 관련되는 특정자산에 속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만 자본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및 상표명등을 포함한 다른 지출들은 발생 즉시 비용화하고 있습니다.

(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회사가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수령하는것에 대해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기본조건이 부과된 정부보조금의 경우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취득원가에 차감하여 표시하며, 차감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액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의 정부보조금은 보전하도록 의도된 비용에 대응시키기 위해 보전하려는 관련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기업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1)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12) 비금융자산의 손상

건설계약에서 발생한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우선,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

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3) 리 스

회사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금융리스

회사는 리스약정일에 측정된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리스개설직접 원가는 금융리스자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리스료는 금융원가와 리스부채의 상환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원가는 부채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리스기간의 각 보고기간동안 배분하고 있습니다. 조정리스료는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은 회사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과 일관된 체계적인 기준으로 상각하고 있으며,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기간과 리스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② 운용리스

운용리스하의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비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의 인센티브는 총효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리스비용에서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5)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 비파생금융부채

회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나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한 금융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금융부채는 소멸한 경우 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17)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과거 근무용역의 결과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고, 그 채무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으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 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관련 채무를 직접 결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관련 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제도로 통신사업부문은 확정기여제도, 기계사업부문은 확정급여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확정기여제도(DC)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DB)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확정급여제도에서 지급될 미래 현금흐름을 관련 퇴직급여의 만기와 유사한 만기를 가지는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을 사용하여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한 후 결정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적 조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에 전액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미인식과거근무원가 누계액과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가산한 금액을한도로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의 변동액인 과거근무원가는 관련 급여가 가득되기까지의 평균기간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 확정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하는 즉시 관련 급여가 가득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거근무원가는 즉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판매보증충당부채는 제품이나 용역이 판매 또는 제공될 때 인식되며, 과거의 보증자료에 기반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와 그와 관련된 확률을 가중평균하여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9)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보유자는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공정가치의 변동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발행할 주식수 및 행사

가격은 보통주의 공정가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인 신주인수권은 동일한 파생상품에 대한 시장가격 또는 합리적인 평가모형에 따라 산출된 공정가치를 이용하여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후속기간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의 전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에서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시점의 신주인수권 공정가치를 별도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최초 인식 시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공정가치와 사채의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전환권의 공정가치로 결정합니다.

만약, 계약 조건에 따라 후속기간 중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될 주식수가 고정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은 자본으로 재분류됩니다.

(20) 외 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 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고,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화폐성항목의 결제시점에 생기는 외환차이와 해외사업장순투자 환산차이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로 지정된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환산차이를 제외한 화폐성항목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이는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1)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22) 주식기준보상

회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중

업원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3) 수 익

회사의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액으로 측정하고 매출에 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재화의 판매에 대하여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관리상 지속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며, 수익금액 및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수익금액과 진행률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고,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임대수익 및 배당금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금융수익과 비용

금융수익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을 포함한 투자로부터의 이자수익, 배당수익,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융비용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충당부채의 상각액, 부채로 분류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변동,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차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세전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손금불인정항

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는 채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를 바탕으로 인식되며, 자산부채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인식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 중 일시적 차이가 과세소득 발생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합니다. 그러나, 일시적 차이가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나 자산·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가 사업결합 거래가 아니고, 거래 당시의 회계이익 또는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의 경우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 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 제정 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회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26) 주당이익

회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신주인수권과 전환사채 및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7) 중단영업

회사는 별도의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을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하

고 있습니다.

(28) 미적용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2012년1월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시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조기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적용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제정

이 기준서는 지배력 원칙을 정의하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연결되는 기업들을 결정하기위한 근거로 지배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제정

공동약정을 두가지 유형, 즉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 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며,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기업참여자)들이 약정의 순 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입니다. 공동영업자는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가능한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약정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하며, 공동기업 참여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그 투자자산을 인식하고 회계처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제정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동 기준서로 통합하였습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이용자들이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타 기업의 지분과 관련된 위험 및 그러한 지분이 연결실체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연결실체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 급여' 개정

임금상승률,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퇴직급여 부채의 증감액(보험수리적손익)을 개정전 기준서에는 당기인식하거나 이연하여 인식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당기인식(기타 포괄손익)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외적립자산에 우량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하여 순이자수익(비용)을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제정

여러 개의 기준서에 분산되어 있던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규정을 동 기준서로 통합하고 공정가치 측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⑥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기타포괄손익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때에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의 집단으로 묶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적용됩니다.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 17 기	제 16 기
현금 배당	1주당 배당금(원)	보통주	20	20
		우선주	-	-
	시가배당률(%)	보통주	0.62	0.55
		우선주	-	-
	배당금총액(원)		267,318,180	264,223,180
주식 배당	1주당 배당주식수(주)	보통주	-	-
		우선주	-	-
	배당주식총수	보통주	-	-
		우선주	-	-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	14,815,960	14,661,210
		우선주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 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관련 시행령 조문위치 변경 (9조→30조)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⑩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개정으로,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의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됨. 따라서,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부분 삭제
부칙추가	부칙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선우	1955.10.26	사외이사 후보	없음	이사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선우	백두종합법률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없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경영성과에 대한 중장기 보상
- 계수화된 목표의 제시를 통한 회사의 장기Vision 달성의Target 설정
- 회사가치의 극대화를 통한 주주에 대한 책임경영의 실현
- 경영성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및 보상 제도 확립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원종범	임원	대표이사	보통주	50,000
이성재	임원	사장	보통주	50,000
김종철	임원	상무이사	보통주	30,000
최영섭	임원	상무이사	보통주	30,000
이득형	임원	상무이사	보통주	30,000
강흥순	임원	이사	보통주	20,000
임재교	임원	이사	보통주	20,000
신순목	임원	이사	보통주	20,000
황인철	임원	이사	보통주	20,000
박광제	임원	이사	보통주	20,000
주영도	직원	소장	보통주	6,000
이성태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강성용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대경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임준우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고동연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배철기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문창호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강정석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박차헌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이의태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정훈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송태수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권오혁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권선근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전재선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종한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이동환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문재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박인근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임승권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현학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기연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이경태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상열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김재식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허 영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장도석	직원	팀장	보통주	6,000
차진영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유태건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신종문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박헌중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장선수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이세원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김호식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박희종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이혁진	직원	수석	보통주	4,000
이완철	직원	수석	보통주	4,000
신종인	직원	수석	보통주	4,000
박노수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정대길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여태주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유태호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정창희	직원	부장	보통주	4,000
유경배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김선철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양건영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최종갑	직원	책임연구원	보통주	3,000
오상원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박기현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이경준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정구열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황준혁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최은종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김동규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하형민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오달석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이고운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김동진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최현석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신주동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이정민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박인규	직원	차장	보통주	3,000
황용목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박창용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김제곤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심기종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황철균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최윤규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최만수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김운하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김기범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임재관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이종훈	직원	선임연구원	보통주	2,000
홍경동	직원	선임연구원	보통주	2,000
박상현	직원	선임연구원	보통주	2,000
김성효	직원	선임연구원	보통주	2,000
김민규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황정희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김기옥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이은주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안덕기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한승목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이관섭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노시득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구자임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박주건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김동현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차민철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박재민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양정욱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홍석균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이봉희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마이클정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문현철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임동민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진민규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서장규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최지연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소병열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백영호	직원	과장	보통주	2,000
공동식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석승호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변일규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배인수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백경훈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박귀현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이한영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이창호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이태연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한혜정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김준우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황정욱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김용훈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성정언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임해석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이승규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신송기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황병태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이선빈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이흥희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강동완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윤주혁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최진훈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허성혁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김재민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홍성율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전진수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윤남일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박용균	직원	전임연구원	보통주	1,000
김범규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성경애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서동우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이진형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박종호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옥임주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김태석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김자원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신동한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채재욱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원현용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김정상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석진성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윤대식	직원	대리	보통주	1,000
유동훈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배철현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구본근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민인환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태현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태현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조봉래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상윤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상기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배정호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어원석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강현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진영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최동철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영훈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배선영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호빈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동균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권영인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조훈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차원주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민석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주봉승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서성환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박부기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박성봉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장한수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윤동현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강현호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손윤섭	직원	사원	보통주	500
홍재은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진희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지수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강용만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기범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배성훈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진형준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전성우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성욱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박재상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권영균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손성환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장동희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박성인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정용태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전지광	직원	연구원	보통주	500
조원주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은혜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배민화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장태규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정태성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성훈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최대담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신용명	직원	사원	보통주	500
김태영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성성주	직원	사원	보통주	500
배병철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석영욱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이병로	직원	사원	보통주	500
총(213)명				총(727,500)주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신주발행, 자사주 교부, 차액보상 중 행사신청시 이사회가 결정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1. 주식의 종류 : 기명식보통주 2. 주식의 수 : 727,5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1. 행사가격 : 정기주주총회 전일 결정 (주주총회 결의일 이전 2개월간, 1개월간 및 1주일간의 거래량 평균종가(가중평균)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함) 2.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 이내 (2015년 3월 22일 ~ 2018년 3월 22일)	
기타 조건의 개요	매출액달성에 따른 성과연동형으로 차등부여하며 이사회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 주식수	부여가능 주식의 범위	부여가능 주식의 종류	부여가능 주식수	잔여 주식수
14,815,960	발행주식의 15%	보통주	2,222,394	2,222,394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8(2)	8(2)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5억원	25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억원	2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